

## 영아-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

정 성 훈<sup>1)</sup>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진 미 경<sup>2)</sup>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정 운 선<sup>3)</sup>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임 효 덕<sup>4)</sup>

본 연구에서는 영아-어머니들의 애착 유형 분포와, 영아-어머니 애착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12-18개월 영아들과 그 어머니들 각각 87명이 낯선 상황 실험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애착관계가 평가되어졌다. 또한 애착 관계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영아 기질을 평가하는 영유아 기질 측정 척도(The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BQ), 어머니 성격을 측정하는 NEO-PI(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부모양육 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들을 어머니들이 작성하였다. 그 결과 1% 회피 유형, 72% 안정 유형, 18% 저항 유형, 9% 비조직화 유형의 애착 유형 분포를 보였다. 관련변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 영아 기질은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 성격과 양육 스트레스는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으며, 영아의 애착행동과도 관계가 있었다.

주요어 : 애착 유형, 애착 행동, 낯선 상황, 기질, 성격, 양육 스트레스

---

1)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부교수

2)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E-mail : childcoun@hanmail.net)

3)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임상 교수

4)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 I. 서론

애착 이론의 중심적 가정은, 부모-자녀 간의 애착관계는 영아가 생애 초기에 맺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 속에서 양육자의 가용성(availabil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을 기초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조직하게 됨으로써 형성된다는 것이다(Bowlby, 1969). 이렇게 형성된 양육자와의 내적 실행모델은 관계(relationship)에 대한 개인의 해석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발달시켜 또래나 성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Zeanah & Barton, 1989).

따라서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관계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회정서 발달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동안 애착 연구 영역에서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양육의 민감성이라는 변인이 가장 널리 알려진 관련변인으로써 애착 안정성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Ainsworth(1978)는 어머니가 자녀의 신호에 민감하고 반응적인 정도에 따라 애착관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Ainsworth는 어머니와 영아간의 관계의 발달은 어머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애착관계는 두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즉, 영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한다고 여겨져 왔다. 이러한 관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양육행동과 관련성을 갖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이러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보

면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성격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성을 갖을 수 있고,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달라지고 이는 자녀와의 애착 관계에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애착 관계와 관련 있는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어머니의 정신건강 및 양육스트레스라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자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영아의 특성으로 부각되어 온 것이 바로 영아의 기질이다. 그러나 영아 기질과 애착 안정성간의 관계는 지금까지 논쟁적이어 왔다. 기질이 행동의 측면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애착 안정성 혹은 그 유형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파(Sroufe, 1985), 영아기질이 저항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Goldsmith & Alansky, 1987) 혹은 애착 안정성의 측정이 기질 측정과 혼동되어 진다는 입장이다(Kagan, 1982). 전자의 입장은 기질이 영아-어머니간 애착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지어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라 하더라도 좋은 양육이 주어진다면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Sroufe, 1985). 반면 후자의 입장은, 애착 이론가들에 따르면 낮은 상황 실험에서 어머니-영아간의 재결합 시 행동들이 애착 유형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Kagan(1982)과 같은 기질 연구자들은 애착 유형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성(proneness-to distress)이 있는 기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영아의 기질이(특히 스트레스에 민감) 애착관계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낮은 상황 실험에서 애착 안정을 평가하는 지표인 주요한 행

동들의 결정요인이라는 입장이다(Kagan, 1982).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정애착으로 분류되는 영아들은 낯선상황에서 분리경험에 의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저항애착으로 분류되는 영아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것이다. 국외 연구들 외에 영아-어머니간 애착과 영아의 기질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들 또한 논쟁적인 결과들을 보여 왔다. 구체적으로 김승경과 강문희(1999)의 연구는 영아 기질과 애착 안정성 간의 유의한 상관을 보고하였지만 박응임(1994)의 연구는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영아들의 애착 유형과 기질 간에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낯선상황실험을 이용하여 애착유형의 분포를 보여주고, 애착 안정성과 관련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나유미, 1996; 박응임, 1994; 이영환, 1993; 유효순, 1985; 장미자, 1998).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한 몇몇 연구들은 예비 연구를 통하여, 아이가 혼자 있게 되는 에피소드를 포함시키지 않거나 각각의 에피소드를 2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한국 실정에 맞는 절차상 수정을 하고자 하였다. 낯선 상황 실험의 가설은 영아의 애착체계를 경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시켜 영아가 보이는 애착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분리 에피소드를 단축할 수는 있으나, 에피소드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실험에서 의도하는 정도로 애착 체계가 활성화 되었는지 문제가 제기되어 질 수 있다. 더욱이 비조직화 애착 유형 측정 시 재결합 에피소드만을 통해 측정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는 모든 에피소드(1,

2, 3, 5, 8)가 관찰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위의 에피소드들의 시간단축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기질과 애착관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연구 시, 낯선 상황의 분리시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가 애착 안정을 평가하는 지표인 주요한 행동들의 결정요인이라는 입장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입장의 논쟁들을 고려할 때, 절차의 수정은 민감한 문제로 제기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하여 영아 애착유형 분포를 알아보고, 기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모자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영아의 특성으로 부각되어 온 것이 영아의 기질이라면, 어머니의 특성으로 부각되어 온 것이 어머니의 성격 변인이다. 이는 성격 변인이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정도나 대처방식에 있어 다른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성격에 따라 이를 인식하는 정도나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 태도 등에 다른 차이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경험적 연구들로 Kochanska와 동료들은(1997) 따뜻함(warmth)과 민감성(responsiveness)과 관련되는 어머니 성격 특성이 영아 애착 안정과 관련되는 것이 기대되어 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 있는 변인으로서 고려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성격과 영아 애착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 보다는, 어머니의 성격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특성과의 관련성을 보고해 왔다. 구체적으로 NEO-PI의 다섯 가지

성격 특성 차원들을 이용한 연구들은 다섯 가지 성격특성 중 신경증(neuroticism)과 외향성(extraversion)이 양육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해 왔다. 구체적으로, Belsky, Crnic과 Woodworth (1995)는 신경증이 덜 적합한 양육과 즉, 덜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덜 긍정적인 양육행동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Belsky와 Barends(2002)는 높은 신경증을 보고한 어머니들이 민감하지 못하고 강제적인 양육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Mangelsdorf와 동료들(1990)은 높은 외향성을 보고한 어머니들이 더 민감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연구자들은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신경증이나 사회적 상호작용과 활동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외향성의 특성들을 스트레스를 비교적 덜 인식하는 성격적 특성으로써 양육 행동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어머니의 성격 변인도 애착 안정성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변인들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격 변인과 영아의 애착 안정성 간에 관계가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애착 안정성과 관련변인으로써 연구되어온 것은 양육 스트레스가 최적의 양육행동을 위한 위험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성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Crnic & Low, 2002; Darke & Goldberg, 1994)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행동을 줄이고, 이는 부정적인 아동의 발달 결과(outcomes)와 관련된다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와 애착관계의 질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들로, Belsky (1984)의 연구와 Shaw와 Vondra(1993)의 연구는 가족,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의 질과

관련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몇몇의 연구들은 (Jarvis & Creasey, 1991; Teti, Nakagawa, Das, & Wirth, 1991) 애착의 안정성과의 직접적인 관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도 애착 안정성에 직접,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변인들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영아의 애착 안정성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한편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선행연구들은 애착 안정성과 각각의 관련변인들 간에 관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애착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밝히는 의의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 변인들이 구체적으로 아동의 애착행동과 어떠한 관련을 가져 애착 유형이 분류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구체적으로 애착 유형의 분류를 위해 평가되는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근접성 추구, 접촉 유지 행동, 양육자에 대한 회피나 저항 행동들이 관련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살펴본다면, 관련 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애착 안정성과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던 변인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이들 각각의 변인들이 아동의 애착 행동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에 관련 요인으로 알려져 왔던 어머니와 영아의 기질 및 양육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들이 영아-어머

니간 애착 관계와 관련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애착 행동들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영아-어머니간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각 요인들이 애착 행동들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성격 및 양육 스트레스, 영아의 기질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애착 안정성과 관련 있는 변인들은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관련 행동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 K시내에 거주하는 12-18개월 사이의 영아 85명과 그들의 어머니 85명이었다. 영아들은 모두 정상 분만아였으며, 모두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K국립대학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들의 양육자와,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어머니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알리는 인쇄물을 배부하였고, 이후에 전화로 다시 연락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지급되었으며, 녹화된 낯선 상황실험 테이프가 제공되었다. 연구대상

자들은 중류층 가정이었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29세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모든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고, 81% 이상이 전문대 졸업 이상이었다.

### 측정 도구

#### 낯선 상황실험

영아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insworth가 고안한 낯선 상황실험 절차를 이용하였다. 낯선 상황실험은 세 개의 분리 에피소드와 두 개의 재결합 에피소드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진 도구이다. 구체적으로 8개 에피소드는 처음 연구자가 어머니와 영아에게 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낯선이와 함께하는 두 개의 분리 에피소드와 영아 혼자 방에 남겨지는 한 개의 분리 에피소드, 두 개의 재결합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진다.

이 도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이의 애착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가정 하에, 두 개의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보여지는 영아의 애착과 관련된 7점 척도인 네 가지 행동(근접성 추구, 접촉 유지, 회피행동, 저항행동) 척도를 기준으로 안정애착, 불안정-회피, 불안정-저항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어진다. 네 가지 애착행동에 근거해 애착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애착유형으로 나뉘며, 네 가지 척도에서 보이는 특성들에 따라 세부적으로 8개의 애착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회피 정도에 따라 회피유형은 A1, A2로 나뉘며 안정 애착유형은 전형적인 안정 애착 유형은 B3, 낮은 근접성 추구하고 접촉 유지를 보이는 B1과 B2, 경미한 정도의 저항 행동을 보이는 B4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저항의 수동성 여부에 따라 C1과 C2로 나뉜다.

비조직화(disorganized)된 애착유형은 Main과 Solomon(1990)에 의하여 최근에 새로이 분류되어진 애착유형으로, 9점 척도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어지는 유형이다. 구체적인 예로, 1)강한 애착행동과 함께 회피나 저항 행동과 같은 상반된 행동을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보인다거나 2)영아의 방향성이 없거나 잘못된 움직임 3)스트레오 타입 혹은 이상한 자세나 행동 4)순간적인 얼어붙는 듯한 행동이나 정지 자세 5)부모를 향한 두려움 6)직접적인 비조직화된 행동들이 비조직화의 관련된 지표들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네 가지 애착행동들이 영아-어머니간 재결합 에피소드에서만 평가되어지는 것과 달리 영아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든 에피소드(1, 2, 3, 5, 8)에서 평가되어진다. 9점 척도에서 5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비조직화 유형이 주유형(primary classification)이 되는지가 결정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절차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따랐다. 분리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아이의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분리 시간을 줄였다.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경미한 정도의 계속적인 울음의 경우는 1분이 지난 후 종료하였고, 정도가 심한 울음의 경우는 30초 후에 종료하였다. 표준화 절차의 검증을 위해 예비연구 테이프가 미국 Minnesota대학에 보내져,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지 논의되었다. 낯선 상황 절차 전 과정이 비디오로 녹화되었으며, 애착유형 분류는 낯선 상황실험 절차 분류를 위한 워크숍을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수하고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한 본 논문의 교신저자와 워크숍을 담당하는 Dr. Carlson에 의하여 수행 되어졌다. 두 평정자 사이의 일치도는  $k=.93$ ,  $p=.00$  였다. 불일치를 보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

의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들의 평가를 위해 한국 연구자들에 의해 번안되었던 설문지들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 계수들을 산출하였다. 예비조사는 K국립대학병원을 방문했던 어머니 6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얻어진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 어머니 성격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osta와 McCrae(1985)에 의해 고안된 다섯 가지의 주요한 성격 차원들을 평가하기 위한 NEO-PI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8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연속 척도이다. 다섯 가지 성격특성들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신경증은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을 말하고, 외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활동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며, 개방성은 새로운 사고, 가치, 경험들에 대한 수용성을 평가한다. 친화성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친절과 사심 없는 관심을 의미하며, 성실성은 조직과 성취에 있어 개인차를 평가한다. 각각의 다섯 가지 성격 특성 중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특성은 여섯 가지의 하위 요인들을 가지는데, 그 하위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진다: 신경증(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심약성), 외향성(온정, 사교성, 주장, 활동성, 자극 추구성, 긍정적 정서), 개방성(상상, 심미성, 감정개방성, 행동개방성, 사고개방성, 가치개방성). 본 연구에서는 이경임(1995)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했으며 예비조사 결과 Cronbach's alpha로 산출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 차원별로 .74에서 .89로 나타났다.

### 양육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사용된 Abidin(1990)의 부모양육 스트레스 척도(PSI)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로, 5점 척도의 총 120문항으로 아동영역과 부모영역으로 나누어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아동영역은 6가지 척도로 아동이 변화와 전이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를 재는 적응성(adaptability), 아동의 적응성을 수용하는 측면과 관련되는 수용성(acceptability), 아동이 부모에게 주는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구성(demandingness), 지나친 울음, 위축, 우울과 관련된 아동의 스트레스 인자를 재는 기분(mood)척도, 부모가 활동적인 양육을 해야 하거나 지나치게 경계를 해야 함으로써 느껴지는 에너지 고갈을 재는 과잉활동성(hyperactivity)/산만성(distractibility)척도,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부모에게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갖게 하는지를 재는 부모강화(reinforces parent)척도가 있다. 부모영역으로는 7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지며, 부모의 성격과 정신병리 요소와 관련된 우울(depression), 양육자로서 느끼는 부모의 능력감(sense of competence)척도, 부모로서의 역할 면에서 부모의 역할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모의 동기를 재는 애착(attachment), 부모역할의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지지를 평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spouse), 부모역할을 위한 신체적 고립, 사회적 지지의 가용성을 재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척도와 양육에 요구되는 현재의 신체적 건강을 재는 부모의 건강(parental health)척도와 부모의 개인적인 자유와 기타 삶의 역할에 미치는 역할 제한(restriction of role)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보충 척도로 19문항의 생활스트레스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경숙 외 연구자

들(2000)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 Cronbach's alpha로 산출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 차원별로 .73에서 .83으로 나타났다.

### 영아 기질

본 연구에서는 영아들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1986)의 영유아 기질 측정척도 The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IBQ)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기질에 대한 어머니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로 7점 척도의 9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도구는 활동성(17문항), 좌절에 대한 고통(20문항),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접근철회(17문항), 주의전환성(11문항), 주의지속성(11문항), 미소와 웃음(15문항)의 6개 하위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영희(1994)가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 Cronbach's alpha로 산출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 차원별로 .72에서 .87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아들의 애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고, 영아들의 애착 유형에 따라 관련 변인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 -검정이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아들의 애착관련 행동들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 상관이 실행되었다.

### III. 결과 및 해석

#### 영아 애착유형 분포

낮선 상황절차를 통해 얻어진 영아 애착유형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각 유형별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세 가지 유형(ABC) 분포에 있어서는 1% 회피유형, 78% 안정애착, 21%의 저항애착 유형을 보였다. 비조직화 유형을 포함한 네 가지 유형분포에 있어서는 1% 회피유형, 72% 안정애착, 18% 저항애착, 9%의 비조직화 애착유형을 보였다.

#### 영아의 애착유형과 어머니의 성격, 양육 스트레스 및 영아의 기질

##### 영아 애착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성격 차이

다음으로 영아의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 성격변인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안정 애착과 불안정-저항 애착 영아들의 어머니들 간에 성격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가 분석되어졌다. 다른 불안정 애착 유형의 영아들은 분포상 현저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여 통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다섯 가지 성격 특성은 애착 안정성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위척도들과의 관련성이 탐색되었으며, 외향성-온정( $df = 78, t = -2.11$ ), 감정 개방성( $df = 78, t = -2.34$ )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안정 애착 영아들의 어머니들( $M = 3.67$ )이 저항 애착 영아들( $M = 3.47$ )의 어머니보다 외향성-온정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안정 애착 영아들( $M = 3.43$ )의 어머니들이 저항 애착 영아들( $M = 3.22$ )의

표 1. 안정애착과 불안정-저항애착 영아들 어머니의 성격

|        | 안정애착<br>( $n=58$ ) |           | 불안정-저항<br>애착 ( $n=22$ ) |           | <i>t</i> |
|--------|--------------------|-----------|-------------------------|-----------|----------|
|        | <i>M</i>           | <i>SD</i> | <i>M</i>                | <i>SD</i> |          |
| 신경증    | 2.97               | .36       | 3.00                    | .34       | .27      |
| 불안     | 3.12               | .62       | 3.06                    | .53       | -.36     |
| 적대감    | 2.71               | .46       | 2.88                    | .45       | 1.47     |
| 우울     | 2.86               | .56       | 2.86                    | .50       | .04      |
| 자의식    | 3.09               | .37       | 3.09                    | .42       | -.02     |
| 충동성    | 3.07               | .50       | 3.03                    | .49       | -.34     |
| 심약성    | 3.01               | .41       | 3.07                    | .42       | .63      |
| 외향성    | 3.28               | .27       | 3.16                    | .26       | -1.74    |
| 온정     | 3.67               | .41       | 3.47                    | .31       | -2.11 *  |
| 사교성    | 3.29               | .47       | 3.15                    | .42       | -1.22    |
| 주장     | 3.02               | .46       | 2.92                    | .41       | -.88     |
| 활동성    | 3.08               | .38       | 3.05                    | .41       | -.31     |
| 자극추구성  | 3.12               | .45       | 3.01                    | .48       | -.99     |
| 긍정적 정서 | 3.50               | .53       | 3.38                    | .50       | -.92     |
| 개방성    | 3.20               | .25       | 3.14                    | .23       | -.88     |
| 상상     | 2.84               | .39       | 2.72                    | .39       | -1.18    |
| 심미성    | 3.28               | .58       | 3.31                    | .38       | .23      |
| 감정개방성  | 3.43               | .37       | 3.22                    | .35       | -2.34 *  |
| 행동개방성  | 3.09               | .37       | 3.07                    | .26       | -.16     |
| 사고개방성  | 3.09               | .49       | 3.14                    | .53       | .43      |
| 가치개방성  | 3.47               | .34       | 3.40                    | .30       | -.83     |
| 친화성    | 3.45               | .24       | 3.37                    | .26       | -1.35    |
| 성실성    | 3.39               | .41       | 3.43                    | .38       | .36      |

\*  $p < .05$

어머니보다 감정 개방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 영아의 애착 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

다음으로 영아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 양

육 스트레스 변인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아동 영역에 대한 스트레스( $df = 79, t = 2.43$ )가 어머니-영아간 안정 애착성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졌다. 구체적으로, 불안정-저항 애착 영아들의 어머니들( $M = 130.19$ )이 안정애착 영아들의 어머니들( $M = 120.83$ )보다 아동 영역 스트레스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위척도와의 분석 결과에서는 아동 영역의 하위 척도인 요구성( $df = 79, t = 2.28$ )과 부모 영역의 하위 척도인 사회적 고립( $df = 79, t = 2.02$ )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머니-영아간 관계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졌다.

표 2. 안정애착과 불안정-저항애착 영아들의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             | 안정애착<br>( $n=60$ ) |           | 불안정-저항<br>애착 ( $n=21$ ) |           | <i>t</i> |
|-------------|--------------------|-----------|-------------------------|-----------|----------|
|             | <i>M</i>           | <i>SD</i> | <i>M</i>                | <i>SD</i> |          |
| 아동영역        | 120.83             | 14.02     | 130.19                  | 18.26     | 2.43 *   |
| 적응성         | 30.78              | 4.51      | 32.67                   | 4.07      | 1.70     |
| 수용성         | 13.95              | 3.57      | 16.00                   | 9.50      | 1.42     |
| 요구성         | 23.80              | 4.35      | 26.43                   | 5.08      | 2.28 *   |
| 기분          | 12.24              | 2.07      | 13.14                   | 2.33      | 1.66     |
| 산만성         | 27.33              | 4.25      | 28.90                   | 3.96      | 1.48     |
| 부모강화        | 12.73              | 2.13      | 13.05                   | 2.20      | .59      |
| 부모영역        | 149.59             | 18.66     | 152.50                  | 16.20     | .64      |
| 우울          | 21.98              | 5.76      | 22.14                   | 4.37      | .12      |
| 애착          | 15.71              | 2.71      | 15.55                   | 2.61      | -.24     |
| 역할 제한       | 24.48              | 4.32      | 23.95                   | 4.19      | -.48     |
| 능력감         | 40.28              | 4.23      | 40.95                   | 3.28      | .66      |
| 사회적 고립      | 13.00              | 3.31      | 15.05                   | 5.54      | 2.02 *   |
| 배우자와의<br>관계 | 21.08              | 4.83      | 20.86                   | 4.05      | -.19     |
| 건강          | 13.08              | 2.72      | 14.00                   | 2.65      | 1.34     |

\*  $p < .05$

다. 구체적으로 저항 애착 영아들의 어머니들( $M = 13.14$ )이 안정 애착 영아들의 어머니들( $M = 12.24$ )보다 요구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저항 애착 영아들의 어머니들( $M = 15.05$ )이 안정 애착 영아들의 어머니( $M = 13.00$ )보다 사회적 고립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 영아 애착 유형에 따른 영아 기질의 차이

다음으로 영아의 애착 유형에 따라 영아의 기질 변인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여지듯이, 본 연구에서는 저항 애착영아들이 부정적 정서성과 관련된 기질 측면에서 안정 애착 영아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3. 안정 애착과 불안정-저항애착 영아들의 기질

|                     | 안정애착<br>( $n=58$ ) |           | 불안정-저항<br>애착 ( $n=22$ ) |           | <i>t</i> |
|---------------------|--------------------|-----------|-------------------------|-----------|----------|
|                     | <i>M</i>           | <i>SD</i> | <i>M</i>                | <i>SD</i> |          |
| 활동성                 | 3.92               | .75       | 4.16                    | .65       | 1.32     |
| 미소와 웃음              | 5.10               | .65       | 5.05                    | .69       | -.22     |
| 새로운 자극에 대한<br>접근 철회 | 3.46               | .70       | 3.56                    | .82       | .50      |
| 좌절에 대한 고통           | 3.79               | .63       | 3.96                    | .73       | .99      |
| 주의 전환성              | 5.24               | 1.08      | 5.26                    | .95       | .10      |
| 주의 지속성              | 3.47               | .79       | 3.44                    | .94       | -.17     |

\*  $p < .05$

### 영아의 애착행동들과 관련변인의 관계

#### 영아 애착 행동들과 어머니의 성격간의 관계

다음으로 영아의 애착 행동들과 어머니의

표 4. 어머니의 성격과 영아의 애착 행동들

|        | 근접성<br>(에피 5) | 접촉유지<br>(에피 5) | 저항<br>(에피 5) | 회피<br>(에피 5) | 근접성<br>(에피 8) | 접촉유지<br>(에피 8) | 저항<br>(에피 8) | 회피<br>(에피 8) |
|--------|---------------|----------------|--------------|--------------|---------------|----------------|--------------|--------------|
| 외향성-온정 | -.13          | -.13           | -.07         | .08          | -.17          | -.27*          | -.27*        | .10          |
| 감정개방성  | -.15          | .01            | -.08         | .10          | -.07          | -.10           | -.26*        | .04          |

\*  $p < .05$ 

성격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t$ 검증을 통해 애착 안정성과 관련이 있었던 외향성-온정과 감정 개방성 변인과의 Pearson 상관이 실행되었다. 표 4에서 보여지듯이 외향성-온정이 두 번째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접촉 유지 행동( $r = .27, p < .05$ )과 저항 행동( $r = -.27, p < .05$ )과 관련을 보였다. 또한 감정개방성이 두 번째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저항 행동( $r = -.26, p < .05$ )과 관련을 보였다.

#### 영아 애착 행동과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관계

다음으로 영아의 애착 행동들과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변인이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  $t$ 검증을 통해 애착 안정성과 관련이 있었던 아동 영역 스트레스와 하위척도들인 요구성과 사회적 고립 변인들과의 Pearson 상관이 실행되었다. 표 5에서 보여지듯이 아동 영역 스트레스가 첫 번째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저항 행동( $r = .26, p < .05$ )과 관련을 보였다. 요구성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는 첫 번째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저항 행동( $r = .23, p < .05$ )과 두 번째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저항행동( $r = .24, p < .05$ )과 관련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스트레스는 첫 번째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접촉 유지 행동( $r = .25, p < .05$ )과, 두 번째 재결합 에피소드에서 접촉 유지 행동( $r = .28, p < .05$ )과 저항 행동( $r = .25, p < .05$ )과 관련을 보였다.

#### IV. 논 의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영아 애착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영아들의 애착 유형 분포를 알아보고, 애착 안정성과 관련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우선, 영아

표 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애착 행동들

|       | 근접성<br>(에피 5) | 접촉유지<br>(에피 5) | 저항<br>(에피 5) | 회피<br>(에피 5) | 근접성<br>(에피 8) | 접촉유지<br>(에피 8) | 저항<br>(에피 8) | 회피<br>(에피 8) |
|-------|---------------|----------------|--------------|--------------|---------------|----------------|--------------|--------------|
| 아동영역  | .02           | .17            | .26 *        | -.10         | .13           | .15            | -.07         | .21          |
| 요구성   | -.03          | .20            | .23 *        | -.10         | .04           | .15            | .24 *        | -.10         |
| 사회적고립 | .13           | .25 *          | .19          | -.15         | .15           | .28 *          | .25 *        | -.14         |

\*  $p < .05$

들의 애착 유형 분류에 있어서는 영아의 78%가 안정애착으로 분류되어 글로벌 분포인 65%(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와 비교되어질 때 다소 높은 분포 비율을 보였다. 회피유형 분포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서양문화권과 비교해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1%의 글로벌 분포와 비교해 1% 영아만이 회피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국내 선행 연구들과 비교에 있어서는 회피 유형 분포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유효순(1985)의 연구는 29%, 이영환(1993)의 연구는 38%로 높은 비율의 회피 유형을 보였지만, 박응임(1994)의 연구는 16%, 나유미(1996)의 연구는 2%로 적은 비율의 회피 유형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 연구들이 절차를 다소 수정하거나 평정기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각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위에 언급된 선행 연구들의 경우에 예비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아이가 혼자 있게 되는 에피소드를 포함시키지 않거나 각각의 에피소드를 2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한국 실정에 맞는 절차상 수정을 하고자 하였다. 낮은 상황 실험의 가설은 영아의 애착체계를 경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시켜 영아가 보이는 애착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분리 에피소드를 단축할 수는 있으나, 에피소드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 이 실험에서 의도하는 정도로 애착 체계가 활성화 되었는지 문제가 제기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분리 에피소드의 생략으로 애착 시스템이 활성화될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었다면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는 행동들이 관찰될 확률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

리 에피소드 외에 다른 에피소드들의 시간 단축 역시 같은 경우의 문제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에피소드들의 시간단축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동양문화권의 연구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일본 Sapporo연구는 0%의 회피유형을 보였고(Takahashi, 1986), 인도네시아 연구의 경우 7%의 회피유형을 보고하였다(Zevalkink, Riksen-Walraven, & Van Lieshout, 1999).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서양문화권과 비교하여 아동 양육에 있어 어머니와 아동 간 상호의존성이나 관계성을 강조하는 동양문화권의 양육방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회피유형과 관련 있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Ainsworth(1978)에 따르면, 양육자와 회피애착유형을 형성한 영아들의 어머니들은 아이의 욕구나 스트레스에 대해 반응을 해주지 않는 상호작용 패턴을 보였다. Ainsworth의 논의에 견주어 볼 때, 양육에 있어 어머니와 아동 간의 관계성(relatedness) 혹은 하나됨(oneness)과 같은 가치를 강조하는 문화권에서는 아동의 욕구나 스트레스를 무시(ignore)하는 상호작용의 패턴은 거의 드물 것이다. 이러한 분포의 특성은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전 연구들의 논의를 뒷받침한다. Kim과 Choi(1994)는 한국 양육태도에 있어 어머니들이 아이가 오랜 시간 울도록 두는 경우가 드물고 아이의 수유욕구에 있어서도 제한을 가하는 것이 드물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저항 애착 분포 비율에서는 글로벌 분포인 14%(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 선행 연구들과 비교에 있어서는 나유미(1996)와 박응임(1994)의 연구에서는 각각 0%, 2%로 낮은

분포 비율을 보였으나 유효순(1985)과 이영환(1993)의 연구에서는 14-1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몇몇 선행 연구들의 분포 상 차이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선행 연구들이 절차를 다소 수정하거나 평정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비조직화 유형 분포 비율에 있어서는 글로벌 분포 (15%) 보다 다소 낮기는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영아 애착과 관련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첫째로, 영아 애착 유형과 어머니의 성격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되어졌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성격 특성이 영아 안정 애착과 관련되지 않았었다. 관련 선행 연구들은 신경증(neuroticism)과 외향성(extraversion)의 민감한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지만 애착 유형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보고하지 않았다(Belsky et al., 1995; Manglesdorf et al., 1990). 따라서 어머니의 성격 변인이 애착 관계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기 보다는 민감한 양육행동과 같은 다른 변인에 영향을 줌으로써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 가지 성격 특성은 영아 안정 애착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그 하위 척도들인 외향성-온정과 감정개방성은 영아 애착 안정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여러 개의 하위 척도들 중 단지 두 개의 하위 척도만이 관련성을 보였는데, 선행 연구들이 애착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 보다는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통한 간접적인 관련성을 제시해 온 것 과 비추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온정은 영아의 접촉 유지 행동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졌고 저항 행동과 부

정적으로 관련되어졌다. 접촉 유지 행동은 어머니와-영아간의 접촉 유지 시간과 관련이 되어 지고, 저항행동은 어머니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아이의 스트레스를 달래느냐와 관련되어진다. 이러한 시각으로부터 따뜻한 성격의 어머니들일 수록 아이와 접촉하는 시간이 더 길 수 있고 그 결과로 그들의 영아들은 더 쉽게 달래지고 덜 저항 행동을 보였을 수 있다고 논의되어 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감정개방성이 영아 안정 애착과 관련되어 졌다. 이에 대해 감정개방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고한 어머니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 융통성 있는 상호작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아의 욕구들에 대해 더 융통적일 수 있고, 안정애착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으로써, 영아 애착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와 불안정 애착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일치했다(Jarvis & Creasey, 1991; Teti et al., 1991). 그러나 스트레스의 영역을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아동영역과 관련된 양육 스트레스는 불안정 애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영역과 관련한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 자신의 스트레스보다는 아동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더 양육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정애착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논의되어 질 수 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척도들과의 분석에 있어서는 아동영역의 요구성과 부모영역의 사회적 고립이 불안정 애착과 관련이 있었고, 영아의 저항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동 양육과 관련된 하

위 척도들 중 아동이 부모에게 주는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구성(demandingness)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아동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보다 관련성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 영역이 불안정 애착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하위 척도들 중 하나인 지지의 가용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고립이 관련성을 보인 것은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의 존재가 스트레스의 경감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두 하위 척도는 영아의 저항애착 행동들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영아의 요구성에 대한 양육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가용성에 대한 부족으로 인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들이 아동의 스트레스를 달래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결과로 영아의 저항 애착 행동들과 관련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영아 애착과 영아 기질 사이의 관계가 연구되어졌다. 낯선 상황 실험은 영아들이 낯선 환경에서 분리를 경험한 후 그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정적 정서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거나 어려운 기질의 영아들은 실험 절차 동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저항 애착 유형 영아들의 어머니들이 부정적 정서성과 관련되는 변인들에 있어 높은 점수를 보고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인 박응임(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사실상 연구자의 관찰 결과 대부분의 영아들이 낯선 상황 실험 동안 스트레스 지표인 울음을 보였었다. 그러나 안정 애착으로 분류되었던 78%가 그들의 어머니들에 의

해 효과적으로 달래져 안정애착으로 분류되어졌다. 그러므로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의 영아들 간의 차이는 영아의 기질에 의해서 보다는 어머니에 의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래지는가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논의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던 어머니와 영아의 기질 및 양육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들이 영아-어머니간 애착 관계와 관련성을 갖는지, 나아가 영아의 애착 행동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영아-어머니간 애착 관계의 형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대상이 수집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수적으로 다른 연구들에 비해 많았지만 한 지역으로부터 표집되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는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표집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는 중산층 가정의 영아들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졌다. 저소득층이나 다른 계층들을 포함한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참고문헌

- 김승경, 강문희 (1999). 영아-어머니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아동학회지, 20(2), 139-150.  
나유미 (1996).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응임 (1994).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경숙, 염현경, 신윤오 (2000). 한국형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초아. 청소년정신의학*, 11(1), 70-78.
- 이경임(1995). 한국인의 NEO-PI-R 요인구조와 부적응 집단프로파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환 (1993).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효순 (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위영희 (1994). 영유아 기질측정 척도의 타당화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15(1), 109-125.
- 장미자 (1998). 애착의 세대간 전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Professional manual*(3rd ed). Odes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Ainsworth, M. D. S.(1967). *Infancy in Uganda: Infant care and the growth of lov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Y: Basic Book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Barends, N. (2002). Personality and parenting. In M. C. Bornstein (Eds.), *Handbook of parenting*(2nd edn, Vol. 3, pp. 415-438). Mahwah, NJ: Erlbaum.
- Belsky, J., Crnic, K., & Woodworth, S. (1995). Personality and parenting: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transient mood and daily hassles. *Journal of Personality*, 63, 905-929.
- Carlson, E. A., & Sroufe, L. A. (1993). Reliability in attachment classification. *Newsletter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12.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Cr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p. 243-267). Mahwah, NJ: Erlbaum.
- Darke, P. R., & Goldberg, S. (1994). Father-infant interaction and parent stress with healthy and medically compromised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7, 3-14.
- De Wolf, M. S. & Van IJzendoorn,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571-591.
- Goldsmith, H. H., & Alansky, J. A. (1987). Maternal and infant predictors of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805-816.
- Jarvis, P. A., & Creasey, G. L. (1991). Parental stress, coping, and attachment in families

- p>with an 18-month-old infant.
-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 , 14, 383-395.
- Kagan, J. (1982).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human infant: An evaluation summary*. New York: W.T. Grant Foundation.
- Kochanska, G., Clark L. A., & Goldman, M. S. (1997). Implications of mother's personality for their parenting and their young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65, 387-420.
- Kim, U., & Choi, S. H.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pp.227-257). Hillsdale, NJ:Erlbaum.
- Lamb, M. E., Thomson, R. A., Gardner, W., & Charnov, E. L. (1985). *Infant-mother attachment: The origins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nge Situation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Lyons-Ruth, K., & Jacobvitz, D. (1999). Attachment disorganization: Unresolved loss, relational violence, and lapses in behavioral and attentional strategie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524-554). New York: Guilford.
- Main, M.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attachment organization: Recent studies. changing methodologies, and the concept of conditional strategies. *Human Development*, 33, 48-61.
- Main, M., & Solomon, J.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121-16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ngelsdorf, S., Gunnar, M., Kestenbaum, R., Lang, S., & Andreas, D. (1990) Infant proneness-to-distress temperament, maternal personality, and mother-infant attachment: association and goodness-of-fit. *Child Development*, 61, 820-831.
- Nakagawa, M., Lamb, M., & Miyaki, K. (1992).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the strange situation behavior of Japanese Infa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3, 300-310.
- Rothbart, M. K. (1986). Longitudinal observat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2, pp. 356-365.
- Rothbaum, F., & Kakinuma, M. (2004). Amai and attachment: Security in cultural context. *Human Development*, 47, 34-39.
- Sagi, A., & Lewkowicz, K. S. (1987). A cross-cultural evaluation of attachment research. In L. W. C. Tavecchio & M. H. Van IJzendoorn (Eds.), *Attachment in Social Networks*, 427-459.
- Sagi, A., Lamb, M. E., Lewkowicz, K. S., Shoham, R., Dvir, R., & Estes, D. (1985). Security of Infant-mother, -father, and -metapelet attachments among kibbutz-reared Israeli childre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57-275.
- Sandbank, A. C. (1999). Personality, identity, and family relationships. In A. C. Sandbank (Eds.), *Twin and triplet psychology* (pp. 167-185). New York: Routledge.
- Shaw, D. S., & Vondra, J. I. (1993). Chronic family adversity and infant attachment secur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1205-1215.
- Sroufe, L. A. (1985). Attachment class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14.
- Takahashi, K. (1986). Examining the strange situation procedure with Japanese mothers and 12-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65-270.
- Teti, D. M., Nakagawa, M., Das, R., & Wirth, O. (1991). Security of attachment between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Relations among social interaction,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sorts of the Attachment Q-set.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0-447.
- Thompson, R. A., & Lamb, M. E. (1984). Assessing qualitative dimensions of emotional responsiveness in infants: Separation reaction in the Strange Situation.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7, 423-445.
- Van IJzendoorn, M. H., Goldberg, S., Kroonenberg, P. M., & Frenkel, O. (1992). The relative effects of maternal and child problems on the quality of attachment: A meta-analysis of attachment in clinical samples. *Child Development*, 63, 840-858.
- Van IJzendoorn, M. H., & Kroonenberg, P. M. (1988). Cross-cultural patterns attachment: A meta-analysis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9, 147-156.
- Zeanah C. H., & Barton M. (1989). Introduction: Internal Representations and Parent-Infant Relationship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0, 135-141.
- Zevalkink, J., Riksen-Walraven, J. M., & Van Lieshout, C. F. M. (1999). Attachment in the Indonesian Caregiving Context. *Social Development*, 8(1), 21-40.

1 차원고접수 : 2006. 07. 01.

수정원고접수 : 2006. 08. 22.

최종게재결정 : 2006. 09. 05.

## A Stud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Related Variables

Sunghoon Jeong

Mi Kyoung Jin

Unsun Chung

Hyo Deog Rim

Dept. of Psychiatry

Dept. of Education

Dept. of Psychiatry

Kyungpook

Sookmyu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omen's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fant-mother attachment pattern and infant temperament, maternal personality, and parenting stress. For this study, eighty-seven infants, ages 12-15 months old, participated in the Strange Situation Procedure. Their mothers completed an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the NEO-PI, and a parenting stress index. The distribu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patterns was as follows: 1% avoidant, 72% secure, 18% resistant, and 9% disorganized. Infant temperament was not associated with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However, maternal personality (extraversion-warmth and openness to feeling) and parenting stress (child domain, demanding, and social isolation) were associated with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and infant attachment behaviors (contact-maintaining and resistant behavior).

*Key words : attachment pattern, strange situation, temperament, personality, parenting stress*